

국제기록문화전시회 세미나

기록문화의 전통 현대적으로 계승해야



국제기록문화전시회 세미나가 지난 6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4층 그랜드컨퍼런스 룸에서 열렸다. 국제기록문화전시회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루이스 벨라도 ICA 부의장이 '기록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미국 국가기록청의 전략적 방향 및 접근'에 대해, 데이빗 리치 ICA 사무총장이 '기록문화 인식제고 및 확산'에 대해, 에르베 르무안 프랑스 국가기록원장이 '프랑스 기록물 유산과 미래 세대에 게 물려주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대해, 한영우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한국 기록문화 전통 및 계승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본지에서는 한영우 교수의 발표문을 요약 게재한다.

● 유네스코에 등록된 한국기록문화유산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등록한 나라이다.

고려-조선시대에 우수한 기록문화를 남긴 것은 불교 및 유교에 바탕을 둔 학술과 교육문화수준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고려시대에는 왕궁 안에 수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송나라에서 필사해 가는 일도 있었다. 송나라는 고려의 높은 문화수준을 평가하여 고려에서 온 사신을 조공사로 부르지 않고 국신사로 불러 극진히 우대했다.

조선왕조 시기에 편찬된 통치기록은 위에 소개한 것 말고도 국방관련 기록인 <비변사등록>, 국왕의 일기인 <일성록> 등이 연대기 형식으로 수백 년에 걸쳐 편찬되었으며, 그 밖에 법전, 의식, 역사, 전국지리지, 지방읍지, 지도, 병서, 농서, 의서, 천문서, 형법서, 악서, 유교경서 등도 국가사업으로 편찬되었다. 조선왕조 기록문화 가운데에는 앞으로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큰 기록들이 적지 않다.

● <실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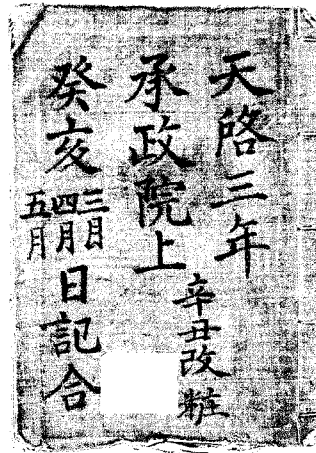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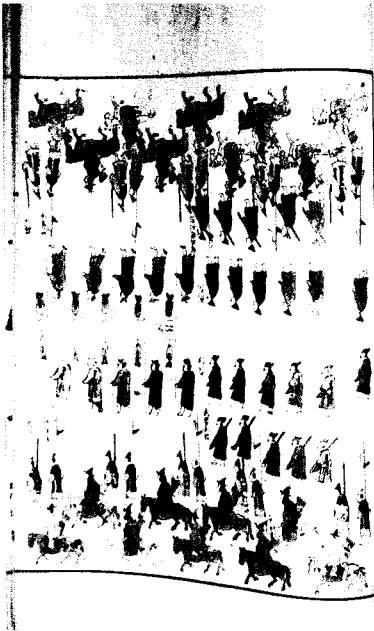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은 국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 실록찬수청을 설치하고 약 200여명의 관원이 참여하여 업무를 나누어 편찬했다. 실록편찬에 참고한 자료는 국무회의 기초인 사초, 승정원에서 발행한 관보인 <조보>, 춘추관에서 매년 작성한 여러 관청의 업무일지인 <시정기>, 국왕 비서기관의 일기인 <승정원일기> 등이다. 이들 자료에서 주요 사항을 발췌하고 요약하여 날짜순으로 서술한 다음, 활자로 4권을 간행하여 서울 춘추관에 1권을 보관하고 나머지 3권은 지방의 사고에 보관했다.

<실록>은 단순히 국내 정치상황만을 기록뿐 아니라 해외와 달, 별들의 움직임과 기후변화와 지각변동까지 기록하여 천문 기상과 천재지변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다.

● <승정원일기> <일성록>

국왕비서 일기인 <승정원일기>는 승정원의 하급비서인 주서가 맡아 기록했는데, <실록>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적지

기록문화명칭	제작연대	규모	등록연대
고려대장경	1237-1248	81,758판(약 5,200만자)	2007년
직지심체요절	1377	-	2001년
조선왕조실록	1392-1864	1893권 888책(약 4,768만자)	1997년
훈민정음	1443	1권 1책	1997년
승정원일기	1623-1910	3243책(약 24,125만자)	2001년
동의보감	1613	25권 25책	2009년
조선왕조역대	1601-1942	833종 3,430책	2007년



◀◀ 조선왕조 의궤
 ◀ 승정원일기
 ▼ 조선왕조실록



않지만, 특히 백성들이 올린 상소문이 원문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요약해서 수록한 <실록>과 다르다. <승정원일기>의 분량이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의 실록인 <실록>보다도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만큼 국왕과 백성들 사이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증거가 된다.

이밖에 국왕 일기인 <일성록>은 1760년부터 세손으로 있던 정조(1776-1800)가 편찬하기 시작하여 1910년 왕조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으며, 모두 2327책이 남아있다. 이 책은 <승정원일기>와 내용상 중복되는 것이 적지 않지만, 국왕이 읽은 책의 이름과 페이지, 국왕이 거동할 때 입은 옷과 가마, 그리고 국왕의 동선까지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 <의궤>

<의궤>는 국가의 중요한 의식들에 관한 보고서인데, 행사의 절차, 행사비용, 행사 참가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함은 물론이요, 행사의 주요 장면과 주요 도루를 화원의 손을 빌려 천연색으로 그려놓아 행사의 현장감을 높여주고 있다.

<의궤>는 조선왕조 개국 초기인 14세기 말부터 편찬하기 시작했으나 16세기말에 일어난 임진왜란(1592-1598)으로 모두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1601년 이후에 편찬된 것들이다.

<의궤>의 가치를 실감하게 만들어 준 사건이 수원 화성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때 일어났다. 정조가 1796년 화성이라는 신도시를 건설하고 나서 그 공사보고서로서 편찬한 <화성성역의궤>는 약 1400페이지에 달하는데, 이 책에는

모든 건물
 의 설계도

와 그 규모, 그리고 각 건물에 들어간 물건비와 인건비가 기록되어 있으며, 공사에 참여한 5천여명의 기술자 이름과 임금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여 유네스코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다. 18세기에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가 건설되고, 1800년에 워싱턴DC가 미국의 수도로 정해졌으나 이렇듯 방대한 건설보고서를 남기지 않았다.

● 미래의 과제에 대한 제언

한국의 1천년간의 고려-조선왕조시대에 우수하고 방대한 국가사업의 기록문화를 남긴 나라이다. 그 이전의 시대에도 국가차원의 기록물이 있었으나 수많은 전란속에 없어져서 유람스럽게도 지금 남아있지 않다.

고려와 조선의 정체제도는 중국의 정치제도를 참고하여 운영했으나, <실록>편찬은 오히려 중국을 능가하는 업적을 이루었으며, <의궤>의 경우는 중국에도 없는 조선왕조 독자의 기록문화이다. 기록문화의 발달은 정치적 도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 왕조의 수명을 500년 이상 지속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기록문화에 대한 미래의 과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왕조시대의 기록문화를 국내는 물론 세계인에게 전달하여 기록문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기록문화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일이다.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